

“내 무기는 멀티플레이어...분데스리가 데뷔 꿈”

‘춘계 연맹전’ 2년 연속 우승의 주역 새도스트라이커·측면수비 두루 소화 노경환 감독 “스피드·개인기 등 출중”



백준기 용인축구센터 이사장

한국 축구는 요즘 젊은 재능이 대세다.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강인(18·발렌시아)이 A대표팀에 승선하는 등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도 꾸준히 풀뿌리 축구를 강화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수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환경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덕분에 국내무대에서도 꾸준히 좋은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다. 지난달 말 막을 내린 제55회 춘계한국중등(U-15)연맹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많았다. 그 중 용인축구센터 소속인 경기용인FC 주장 배현웅(15)이 눈에 띈다. 용인축구센터(이사장 백준기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적극적인 후원(연간 30억원)으로 고교 1팀, 중등 2팀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배현웅은 팀을 2년 연속 대회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다. 태성중학교에 재학 중인 그는 2학년이던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 출전해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데 힘을 보탰다. 전형적인 멀티플레이어로 지난해에는 측면 수비수까지 소화했다. 올해 새도 스트라이커를 맡아 7골을 넣어 2년 연속 대회 중무그룹 우승을 일궈냈다. 대회 결승전에서는 1골을 넣으며 팀이 3-2로 역전승을 거두는데 앞장섰고, 대회 최우수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난해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진행하는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을 경험했을 정도로 잠재력을 가진 선수다. 축구선수로의 성장을 위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용인축구센터가 운영하는 팀을 선택했다. 지난해에는 광역센터 훈련까지만 참가했고 영재훈련에는 발탁되지 못했다. 영재훈련은 사실상 연령별 대표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국에서 각 연령별 50명만 선발해 진행되는 훈련으로, 연간 2차레만 실시된다.

초등학교 재학시절 대표 상비군에 선발된 경험을 갖고 있는 배현웅은 “올해는 꼭 영재훈련에 들어가고 싶다. 예전에 상비군에서 훈련했었는데 잘 하는 친구들이 너



차범근-노경환 명장들의 만남 경기용인FC 노경환 감독(오른쪽)이 지난달 춘계한국중등연맹전 최우수지도상을 수상한 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망주 배현웅을 지도하고 있는 노 감독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제공 | 용인축구센터

무 많았다. 그런 친구들과 다시 뛰어보고 싶다. 첫 대회를 잘 치렀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잘 하는 형들이 많아 5관왕을 했는데, 이제는 형들이 떠나고 나와 친구들과 해야 한다. 춘계연맹전도 부담이 있었는데 우승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남은 대회가 많은데 주말리그에서는 꼭 좋은 성적을 거둬야겠다”고 목표를 공개했다.

배현웅을 지도하는 경기용인FC 노경환 감독(52)은 “(배)현웅이는 골키퍼를 제외한 어떤 포지션에 놓아도 제몫을 하는 선수다. 스피드와 개인기가 좋다. 영재훈련에서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기회를 앞두고 몸이 안 좋았던 적이 많다”라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춘계연맹전에는 새도 스트라이커로 기용했지만 좌우 날개와 최전방 공격수까지 모두 소화 가능하다. 첫 대회에서도 팀을 위해 너무 잘해줬다”고 얘기했다.

배현웅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정우영(20·바이에른 뮌헨)을 보며 꿈을 키우고 있다. 정우영처럼 국내에서 꾸준히 성장해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게 꿈이다. 그는 “분데스리가 경기를 자주 시청하는데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스피드를 중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고 느꼈다”며 “(정)우영이 형을 독일 그라운드에서 만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한국축구는 최근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유망주들의 등장으로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 경기용인FC 주장 배현웅도 파릇파릇한 새싹 가운데 하나다. 배현웅이 지난달 말 끝난 춘계한국중등(U-15)연맹전 우승 트로피를 들고 밝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 | 용인축구센터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뽑아요”

오늘부터 대전·울산·서울서 설명회 18일부터 공모...5월10일 최종선정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8일부터 '2019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2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계층, 연령대의 회원에게 여러 종목의 수준별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이다. 2013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76개 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1개 이상의 시설을 확보한 자치단체(시·도·시군구), 체육전문단체, 교육단체, 프로구단, 비영리법인 등이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 접수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다.

서류 및 발표 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5월 10일에 최종 선정단체를 발표한다. 선정된 단체는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으로서 대도시형은 최대 9억 원(연 3억), 중소도시형은 최대 6억 원(연 2억)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공모 전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사전 설명회'를 대전(13일), 울산(14일), 서울(15일)에서 차례 실시한다. 스포츠클럽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8일 이후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이 종목별 참여인구 및 저변 확대,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 우수선수 발굴 등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엘리트체육 관행 깨고 스포츠 선진국으로”

국회의원회관서 스포츠개혁포럼 출범 안민석 위원장 “체육개혁 마지막 기회”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관행을 깨고,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체육개혁 모임 '스포츠개혁포럼'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김창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장(중앙대 총장), 조희연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서울시 교육감),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전 국가대표)이 공동대표를 맡은 스포츠개혁포럼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체육계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 구성된 스포츠개혁포럼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냉전시대 산물인 메달지상주의를 넘어 평화와 복지시대에 맞게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스포츠의 가치를 두는 스포츠선진국을 향한 개혁이 절실하다”며 “체육 개혁

을 위해 정부는 엘리트체육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이미 천명한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한체육회는 개혁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체육단체 통합의지에 부응해 스스로 혁신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포럼 창설을 주도한 안민석 위원장은 “올해는 체육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개혁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내 완성돼야 하며, 하반기에는 이를 실행하고 점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전폭 지원하는 우리 포럼은 대학스포츠협의회,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체육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주 김한표 박인숙 신동근 이동섭 이상민 최경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원장 등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

스포츠개혁포럼 출범식

일시 2019. 3. 12.(화) 07:30-09:00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의실



스포츠개혁포럼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가운데 포럼 창설을 주도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정화 마사회 탁구단 감독, 안 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장. 김도현 기자

원, 임변장 대한체육회 혁신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대한축구협회 홍보부 전무이사 등도 스포츠개혁이란 시대 흐름에 뜻을 함께 했다. 체육계, 교육계, 학계, 정

치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스포츠개혁포럼은 135명의 발기인 명단도 공개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환상특급!
바이칼호수 한바이칼 열차와
알혼섬 5일
5월 20일 출발
마중여행사 02-730-2270